

### 천안 택시복지센터 운전 적성정밀검사장 신설해

천안시는 관내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천안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사장은 동남구 삼룡4길 58-2 천안시택시 종합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다.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영하며, 신규·특별·자격유지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결함 요인을 평가해 자격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법정 검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격유지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다.

그동안 천안 지역 운수종사자들은 검사를 위해 청주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원거리 이동을 해야 했다. 이번 검사장 신설로 관내 운수종사자 5,700여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 시설은 천안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쉼터 내 공간(135㎡)을 5년간 무상 제공하며 마련했다. 시는 이동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연간 약 5억 7,000여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중 과장은 "교통안전 확보와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청양보건의료원 응급실 4월 19일부터 정상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축소 운영해 오던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오는 19일부터 정상 운영 체제로 전격 전환한다. 그동안 제한적 운영으로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응급실 전담 봉직의사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자 확정됨에 따라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는 기존대로 주 3일(수, 금, 일요일) 축소 운영을 유지하고, 19일(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는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의료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주민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응급실 정상화를 기점으로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민들이 365일 언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정상 운영 전까지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119 구급대 및 인근 지역(보령, 홍성, 공주 등) 의료기관과 긴밀한 이송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응급실 휴진일 동안 인근 의료기관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 진료관리팀) 또는 응급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대학·연구기관 기술 미래사업 키운다

#### 충남, 대학·기관 등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사업화 촉진' 업무협약

### 기술이전 계약체결



충청남도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충남도는 아산 다비인벨리에서 '충남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사업화 촉진 업무협약 및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대학·연구기관·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소부장 지원전략 소개, 업무협약 체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유망 기술 및 정책 설명, 상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충남중소기

업연합회 회장, 기술보증기금 및 11개 대학·연구기관 대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 등 15개 기관에서 참여해 체결했다.

협약 참여 대학·연구기관은 건양대, 공주대, 남서울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맺었다.

무엇보다 도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과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사업화를 도모한다. 협약에 이은 기술이전 계약은 24개 기업이 4억 7,160만 원 규모로 체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 기업 6,200만 원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유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정책 설명은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등이 가졌으며, 이와 함께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소부장 기업의 전략기술 확보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기술이전 활성화 협력 체계를 통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기업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기술을 적기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충청북도, '내 땅 경계 바로잡기'에 가속도

####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개소 지정·고시, 총 5,807필지, 39.8㎢ 규모

충청북도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개소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도내 5개 시군(제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에 걸친 총 5,807필지, 39.8㎢ 규모다.

충북도는 올해 47개 지구 1만 8,49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 3월 27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구별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경계분쟁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시군에 배포하고 관련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민 홍보를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상승,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김승래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경계 불일치 해소에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NewYork Festivals, 이하 NYF)의 앨런 스미스 CEO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을 살펴봤다.

이들은 김영환 지사와 함께 AI와 접목해 도민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자서전을 감상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청 혁신 공간을 두루 살펴본 후 충북의 혁신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영상자서전 사업 보고에서 NYF 관계자들은 영상자서전 채승훈 총괄감독의 사업 소개에 이어, 도민 촬영서포터가 직접 제작한 '1953년생 김미정'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앨런 스미스 CEO는 영상자서전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신규홍보대사 행정수도 세종 알려

#### 세종시, 유튜브 임승관·해외 장학생 등 7명 위촉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비전을 알릴 신규 홍보대사가 위촉됐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시청에서 도시 미래 성장 전략과 정체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는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임승관 씨(활동명 니미니미)와 해외유학 장학생 김기훈·신주빈·정민휘·강민지·김한숨·김고은 등 총 7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4월 1일까지다.

최민호 시장은 위촉식에서 신규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홍보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관 씨는 요리와 영상 일기(브이로그) 등 일상 속 친근한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 동구 신흥문화·신대소공원 재조성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신흥문화공원 일원에서 '신흥문화공원 및 신대소공원 재조성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인근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원 설계용역 수행업체인 ㈜경림엔지니어링의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도서관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휴식 및 소통 공간 확대 ▲야외 독서 공간 조성 등 도서관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 구성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원 접근성 개선, 보행로 안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구는 이를 종합·검토해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신흥동 266번지 일원, 총면적 4,371.6㎡ 규모로, 영어도서관과 연계한 공원 재조성을 통해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독서,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충남중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2023년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700㎡이내 규모로 2028년 신흥문화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祝 창간 19주년 세계타임즈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